



새천년과 신지식 농업인

새천년은 '생산성 제고·신시장 개척'에 초점 둘 것
 '신지식농업인' 감성·창조·실천기능 등 새로운 것 추구해야

■ 심재성 배재대학교 대학원장



우리 나라 경제는 과거 3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5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개도국으로서의 보기 드물게 비약적 발전을 한 선도적 국가가 되었고 국민총생산도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위치로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은 IMF라는 걸림돌을 맞아 잠시 주춤하면서 1인당 GNP도 1만달러에서 6천달러 수준까지 곤두박질 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했다.

이같은 경제 전반의 후퇴는 농업이라고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그 동안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농촌지역 기반시설과 기술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이러한 조치가 그나마 우리 농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걸

음 다가서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1인당 조수익은 최근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못했다. 시대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산업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업자체가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다.

‘지식자원’ 산업의 핵심요인으로 등장

우리의 농업이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미흡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산업계와 다를 바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신경영지식이 가미된 신농업에 문을 두드려야만 한다. 21세기의 세계경제가 기술약진과 정보혁명이 주도하는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시장개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민감해야 한다.

어제 오늘 밝혀진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농업은 전국민의 3%에 미치지 못하는 농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또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수립에도 골몰하고 있다. WTO는 바로 그러한 전략을 아주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농업은 내면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 없이 21세기를 맞고 있다. 농업생산에서 적용되고 있는 3가지 요소로 토지, 노동 및 자본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토지는 산업혁명 전까지 부의 원천이었다. 산업사회와 더불어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생산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토지보다는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업도 자본 없이는 대량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금융업이 발달됨으로써 저축이 생활

화되어 자본을 끌어다 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토지나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일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핵심 생산요소는 토지나 노동, 그리고 자본으로 부터 인간의 지식으로 이전되어 오늘날 지식자원은 모든 산업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고정관념 보다 신지식경영이 ‘농업경쟁력’

그러므로 무형의 지식자본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경영이 오늘날 최고의 경쟁무기가 되었다. 정보기술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컴퓨터에서 살펴보자. 85년 10월에 처음으로 386DX가 선을 보였다. 3년 6개월 뒤인 89년 4월에 486DX로 갱신되었고 다시 5년만인 93년 3월 펜티엄으로, 3년도 되지 않아 펜티엄프로로, 그리고 다시 2년10개월 만인 98년 9월에는 펜티엄II로 모습을 바꿨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촌은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 버렸다. 이제는 공장이건 농장이건 컴퓨터 없이는 아무 작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무섭도록 빨라진 변화속도 만큼이나 불확실성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여 신지식, 초우량 경영기법에 대한 요구도가 한층 심화되었다. 바로 첨단지식이 가미된 정보기술의 활용이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절대조건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우리의 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 지성인들은 미래사회의 성격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결국은 「지식기반경제」,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의 25대 기업 가운데 1998

년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짧은 시간 사이에 사라진 이유는 성공하고 있을 때, 구축해 왔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수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갈파했다. 농업이라고 예외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농업도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고정관념을 기꺼이 탈피하면서 신지식에 의한 경영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信創柔速원리 가져야 '농업지식경영인'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인식과 행동을 요구한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사고와 행동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결과는 뻔하다. 농업의 지식경영에서도 이에 다를바가 없다. 농업환경의 놀랄 만한 변화에 대처하는 경영방식이 곧 농업에 있어서의 지식경영이라고 한다면 국경 없는 경제권의 시대에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남보다 앞선 지식경영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새롭게 전개되는 가치기준에서 농업경영 형태나 제도를 바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농업지식경영인의 자세는 신창유속(信創柔速)의 원리, 즉 신용을 지키고(信), 창의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며(創),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빠르게 도입하는(速)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는 IMF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현대는 불경기시대가 아닌 변화기(變革期)의 시대이다. 산업사회의 잣대로 보면 분명 불경기일 것이나 정보화 사회의 감각으로 보면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여기에 재빨리 편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생활수단 아닌 자아실현의 장

이 변화에 순응하려면 우리의 농업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상상하기 싫은 현상이 일본에서는 한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그 하나가 쌀값 문제다. 보통미가가 10kg에 5천엔인데 비해 '아키다 고마치' 쌀 10kg은 약 3천900엔대로 파격적인 가격에 출하되고 있다. 한 협동조합장은 그레야 일본쌀이 산다고 말한다. 신지식 경영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쌀만은 끝까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사고-변화없이 안주하는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신농업 지식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경제 국경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 농산물이니깐 굳게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의존의 틀을 고집한다면 우리 농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신지식 농업인은 항상 새로운 기능을 추구해야 한다. 즉 고IQ가 아닌 감성적 기능, 창조적 기능 및 실천적 기능보유도 요구된다. 농업자체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에 독보적이면 그만큼 부가가치는 증진될 수 있다. 이제 농업이라는 직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생활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이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교수는 「앞으로 신지식을 동반한 고신뢰사회(高信賴社會)는 성장하지만 저신뢰사회(低信賴社會)는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해야 상품으로서의 제값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새천년에 들어서서 우리의 신지식 농업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지식기반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악정보**